

# 이제마의 사상인(四象人)의 패션 이미지 및 컬러 이미지 분석

장애란 · 김현미 · 임지영 · 현명관 · 백은진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 요약

본 연구는 의류학과 한의학이 신체적 특성 및 성격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유사성과 사상체질의 구별이 의복을 착용한 체형과 용모인 외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본으로, 사상체질을 고려한 의상디자인 및 색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체질개선은 물론 현대인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병폐를 치유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된 이론 및 통계분석을 기준으로 분류된 사상인별 신체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에 따라 여성들의 체질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의상디자인 및 색상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감성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상인의 패션이미지와 컬러이미지를 분석·해석한다.

## 1. 서론

현대사회의 경제적 풍요로움은 현대인에게 육체적 건강을 주었지만, 정신 건강의 피폐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현대인의 관심은 정신 건강으로 집중됨으로써 체질 신드롬이 등장하였고, 더불어 체질의학, 체질론이 부각되었다.

사상체질의학은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선생의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서 수립된 학문으로<sup>1)</sup>, 내용의 '사상인(四象人)'이라는 명사를 후세에 '사상의학(四象醫學)'이라 칭한 것이다.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사상철학에 바탕을 둔 전인건강학(全人健康學)으로, 타고난 체질의 장·단점을 잘 알고 이를 보완하여 건강한 삶, 건전한 인격으로 인도하자는 뜻이<sup>2)</sup> 체질론<sup>3)</sup>에 숨어 있다고 본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성(性)과 정(情)을 받는데, 성을 잘 펼치고 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상의학의 기본이다<sup>4)</sup>.

그러므로 체질의학은 현대인에게 영혼과 마음, 기(氣)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체질이란 기질의 개념<sup>5)</sup>을 인간의 신체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지 않고 심리적인 차원과 신체적인 차원을 모두 포괄하여 다룬 개념으로, 心身을 일체로 본 심신의학이다. 현대인의 체질은 네 가지 형태, 즉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등 사상인으로 나뉘고, 각 체질마다 체형과 마음의 형으로 이루어져 사상체질이라 한다. 사상체질은 性質才幹(재능, 소질, 장점), 恒心(항상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 心慾(심성을 다스리지 못해 너무 과도한 때 드러나는 욕심) 등으로 구별되며, 심성은 적성, 대인관계,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서 차이를 보인다<sup>6)</sup>. 예를 들면, 태양인은 직관적 성향을 타고났지만 감각기능이 취약하며, 태음인은 감각성향을 타고났지만 직관기능이 취약하고, 소양인은 감정성향을 타고났지만 사고기능이 취약

하며, 소음인은 사고성향을 타고났지만 감정기능이 취약하다.

이와 같이 체질은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이 합쳐진 포괄적인 개념으로, 주로 한의학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렇다고 체질론이 단순히 식이요법이나 체질감별법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체질에 따른 스포츠학, 인사관리, 적성검사, 대인관계, 부부간의 속궁합, 자녀교육 등 광범위한 응용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의학의 사상의학은 사상체질을 체형과 용모, 성격에 따라 구별되는 차이를 분석하여 다스리는 것이라면, 의류학 분야에서도 외모와 성격에 따라 의복 스타일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사상체질의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디자인 개발 및 색상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리라 본다. 사상체질과 의복을 접목시켜 연구할 수 있는 이유가 체질마다 외모에 대한 일정한 체형패턴과 성격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라 사려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개인의 외모를 통해서 여성답다, 대담하다, 활동적이다, 차분하다 등 상대방의 성격 추측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성격(personality)이란 용어에는 많은 개념이 포함되어 성격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sup>7)</sup>도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견해는 성격이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행동을 이끌어 가는 조직체계이며, 동시에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성격에 관한 의류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주로 성격특질이 의복행동연구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성격특질과 의복과의 관계 연구, 의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인들 중의 하나로서 성격특질이 포함된 연구, 그리고 성격특질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 디자인과 이미지, 그리고 선호하는 색상이 다르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과 한의학이 신체적 특성 및 성격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유사성과 사상체질을 구별함에 있어 먼저 체형과 용모, 즉 의복을 착용한 외모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상체질을 고려한 의상디자인 및 색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체질개선은 물론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현대인의 병폐를 직·간접적으로 치유하여 건강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사려된다.

따라서 한의학과 심리학에서 선행 연구된 이론 및 통계분석을 기준으로 분류된 사상체질의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따라 여성들의 체질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의상 디자인 및 색상을 제시하기 앞서, 선행연구로 체형 및 성격에 의한 사상인의 패션 이미지와 컬러이미지를 분석·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각 사상인의 신체적 특성 및 성격 특성에 의한 패션이미지를 감성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둘째, 각 사상인이 선호하는 색상을 계절별 컬러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사상체질의 개념

체질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특성·정신적 특성·병적 영향에 대한 저항력·반동적 발현을 말한다<sup>8)</sup>.

사상체질은 조선시대 의학자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선생(1837-1900)이 창안한 사상의학의 핵심이론으로<sup>9)</sup>,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서 주역(周易)의 태극(太極)-음양(陰陽)-사상(四象)-팔괘(八卦)의 변화 원리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동양에서는 우주 생성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 체계로서 『주역(周易)』이 처음 정리되었다. 『주역』의 '계사전(繫辭傳)'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역에 태극이 있어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sup>10)</sup> 여기에서 '양의'란 음양(陰陽)을 말하며, '사상(四象)'이란 태음(太陰)·태양(太陽)·소음(少陰)·소양(少陽)을 말한다. 음양은 태극이라고 하는 절대적 개념에서 분화된 상대적이고 이원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낮과 밤, 상하, 좌우, 전후, 남녀 등 음양이라

고 하는 양극단은 태극이라고 하는 일원성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질서를 이루며, 이렇게 통일된 음양의 질서가 우리가 속한 우주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음양은 다시 사상으로 분화하여 우주의 4가지 원소를 구성한다.

즉 사상체질은 음양설(陰陽說)에 근거한 건(乾=天)·곤(坤=地)·감(坎=水)·리(離=火)의 4원구조적 원소(原素)를 태극(太極) 음양의 '변화하는 상(象)'으로서의 사상(四象)에 입각한 것이다. 1차원인 선(線), 2차원인 평면, 3차원인 입체, 4차원인 시간, 5차원인 마음을 더한 세계를 근본으로 삼는다.

결론적으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상체질을 태극, 음양의 개념에서, 인간을 태극으로 볼 때, 태극은 남녀 즉 양(-)과 음(-- ) 나뉘고, 이는 다시 남자다운 남자(태양=), 여자 같은 남자(소음=), 여자다운 여자(태음=), 남자 같은 여자(소양=) 등 사상의 단계로 분화한다<sup>11)</sup>.

2-2. 사상인의 체질별 특성

체질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몸의 성질, 몸의 바탕, 개인의 형태적·기능적인 모든 성상(性狀)'이라고 정의하며, 단적으로 사람 개체의 '성질'을 일컫는 말이다. 서양에서는 '성질'을 성격과 기질로 구분하는데, 성격은 의지의 소질이라는 생리적 기초 위에서 환경적 작용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고, 기질은 감정의 소질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의 특징으로서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다<sup>12)</sup>.

그러므로 사람 개체의 성질을 사상의학적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사람이란 사람 개체를 구성하는 마음과 몸의 성질로 보는 것이다. 즉 성질이란 것은 마음의 성향(性向)과 몸의 형질(形質)을 말하므로 각 체질마다 성격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서 살펴보았듯이, 외형은 오장육부의 병적 상태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부, 심리상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내부 장기는 물론 체격·용모·머리·어깨·허리·엉덩이·턱·가슴·배꼽·배에 이르기까지 외형과 내부 심리상태와의 관계를 대비·규명하여 이를 발병·질병예방·치료에 응용하고 그 결과를 이론화하고 체계화시킨 것에서 알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상인의 신체적 특성과 성격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사상인은 타고난 내부 장기의 생리·심리적 기능에 네 가지 다른 점이 있음을 말한다. 즉 양(陽)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태양인, 음(陰)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태음인, 양이 약간 많은 사람을 소양인, 음이 약간 많은 사람을 소음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사람을 태양인, 위가 크고 신장이 작은 사람을 소양인이라 하며,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사람을 태음인, 신장이 크고 위가 작은 사람을 소음인이라 하여, 인체의 장기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성정(性情)이 결정하는 작용을 한다고 본다.

<표 1> 음양설

중정(中正)	태극(太極)	●							
일변(一變)	음양(陰陽)	음(陰) --				양(陽) -			
이변(二變)									
삼변(三變)	팔괘(八卦)	곤(坤) 지(地) ☷	간(艮) 산(山) ☶	감(坎) 수(水) ☵	손(巽) 풍(風) ☴	진(震) 뢰(雷) ☳	리(離) 화(火) ☲	태(兌) 택(澤) ☱	건(乾) 천(天) ☰
복희(伏羲)	괘순(卦順)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한태음	열태음	한소양	열소양	한소음	열소음	한태양	열태양

(강인정, 체질보감, 넥서스, p.32)

(표 2) 사상인의 辨證略圖

사상인 특성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신 체 적 특 성	얼 굴 형	· 머리가 크고 둥근편 (특히 목덜미, 뒷머리 발달) · 하관이 빠르고 눈이 작음	· 원형 또는 타원형 · 눈, 코, 입, 귀가 크고 입술은 대체로 두툼	· 머리가 앞뒤로 나오거나 둥근편, 밝은 표정 · 뺨쪽한 턱, 입은 크지 않으며 입술은 얇은 편 (특히 눈매가 날카로움)	· 용모가 오밀조밀 잘 어우러져 있음 · 눈, 코, 입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입술은 얇음 · 눈에 정기가 없음
	체 형	· 체구가 단정 · 상체에 비해 하체와 허리가 약함(마른편) · 깔끔한 인상, 눈에 광채	· 큰 체격, 근육, 골격 발달 · 보통 키가 크며 몸에 비대한 사람이 많음 (특히 손발이 큼) · 허리가 굽은 편이고 상체보다 하체가 더 충실 · 의젓하고 무게가 있어 보임 · 여자는 미인이 적음	· 상체에 비해 하체가 약함(특히 다리가 가늘) · 가슴 주위가 발달, 경쾌해 보이나 가벼워 보이는 인상 · 걸을 때 항상 먼 곳을 보고 걸음	· 상체에 비해 하체 발달 · 살과 근육이 비교적 적으나 골격은 굵은 편 · 키와 몸집은 대체로 작은 편, 몸매의 균형이 잡힌 사람이 많음 · 얌전하고 온화한 인상 · 미남미녀가 많음
성 격	기 질 적 특 성	· 머리가 명성, 과단 성, 진취성, 영웅심, 자존심이 특히 강함 · 독창적 (뛰어난 창의력) · 의욕과잉으로 주위 와의 화합이 잘 안 되며, 독선적 · 남을 비난하길 좋아 하며 분노를 잘 일으킴	· 인자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활동적 · 집념과 끈기, 집착으며 묵묵히 실천 · 외곬수, 고집이 세고 음흉하여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음 · 여자는 애교성이 적음 · 계을 때는 한없이 계으름 · 호걸형, 낙천가 타입 · 겁장이, 사업가 정치가 타입	· 외향적, 명랑, 재치, 판단이 빠름 · 다정다감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이 강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이 변치 않음 · 강직하고 의분을 참지 못함(화를 잘 냄) · 성질이 급하고 경솔하며 실수가 많음 · 계획성이 적음 · 비판적, 체념이 빠름 · 대인관계는 원만하나 가정 소홀히 하는 경향 · 상인, 군인, 봉사자, 중계인, 서비스업 기질	· 사색적이고 매사에 치밀 하며 착실 · 판단력이 빠르고 머리도 총명, 예의바름 · 세심하고 내성적이며 · 질투가 심하고 계산적 이며 화가 나면 쉽게 마음을 풀지 않음 · 늘 불안정한 마음, 작은 일에도 속상해함 · 여자인 경우엔 꼼꼼하게 살림을 잘함 · 지사형(志士型), 공생원 타입 · 교육자, 종교가, 학자, 사무원 기질
	심 리 적 특 성	· 남들과 잘 소통, 재간 은 사교적, 과단성, 진취성이 강함 · 계획성이 적고 대담 하지 못하며 남을 공격하기 좋아하고 후퇴를 모름 · 지나친 영웅심과 자존심이 강하여 일이 안될 때에는 심한 분노를 표출	· 뻔히 잘못된 일인줄 알면서도 무모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우둔성 · 앞은자리에서 뭉개고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으며 비록 묵묵히 있어도 속으로는 무궁무진한 설계를 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면 대성 · 도락을 매우 좋아함 (지구력으로 성공) · 자기 주장이 강하여 끝까지 소신을 피력하는 끈질긴 성격 · 남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디지만 한 번 발언을 시작하면 무게있고 폭넓은 내용의 웅변을 토함	· 일이 안될 때에는 체념을 잘함 · 의분이 생길 때는 물발을 헤아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김 · 상대가 잘못을 뉘우칠 때에는 즉시 동정으로 변하고 얼마 후에는 그 일을 잊으며 또 재론 하지 않음 · 무슨 일을 만들거나 개혁하는대는 장기가 있지만 조직과 마무리 하는대는 부족 · 가장 욕심이 적고 성질이 급하여 오락에는 소질이 없으며 또한 호색가도 못됨	· 내성적이며 사교적 · 외유내강 · 자기분위로만 생각하고 실리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 매우 조직적, 사무적 · 말은 일은 빈틈없는 처리, 뒷사람에게 비위를 잘 맞추며 아첨도 함 · 자기가 한 일에 남이 손대는 것을 가장 싫어 하고 남이 잘하는 일에는 질투가 심함 ·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며 인색하고 불신하는 일이 많음

### 3. 사상인의 패션 이미지 및 컬러 이미지 분석

#### 3-1. 사상인의 패션 이미지

사상인의 외모는 체질마다 일정한 체형패턴이 있어서 체질구별에 참고가 된다. 다시 말해서 사상인들은 의복을 통해서 외모를 표현하며, 또한 표현된 외모로 사상인을 구별한다. 구별이 가능한 것은 이미지를 만드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미지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조합하여 완성된 것으로,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어떤 하나의 형태를 의미하므로, 각 사상인 자신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인지한다면, 좀 더 쉽게 외모를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높이는 방향 즉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 사려된다. 사상인의 외모는 체형과 성격이 내재된 의복 스타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상인들이 선호하는 패션이미지는 의복에 대한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취향은 타고난 개인의 성격과 후천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선천적,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각기 다른 행동양식의 독특성과 심리적인 특성이 성격으로 나타나므로, 성격은 일관성 있는 행동 또는 특징적 행동과 감추어진 행동으로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패션 이미지로 표출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상인의 신체적 특성 및 성격특성을 바탕으로 각 사상인의 패션 이미지를 분석한다. 패션 이미지를 감성적 요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것은 연구대상인 여성 중심의 사상인이 대중화된 패션생활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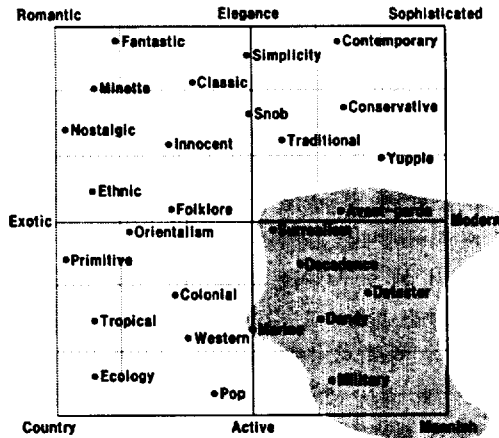
그러므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션이미지를 페미닌, 액티브, 노스탈지, 모던 등의 4차원을 기준으로, 엘레강스, 소피스케이티, 모던, 매니쉬, 액티브, 컨트리, 엑조틱, 로맨틱 등 8가지로 분류한다.

<표 3> 감성적 요소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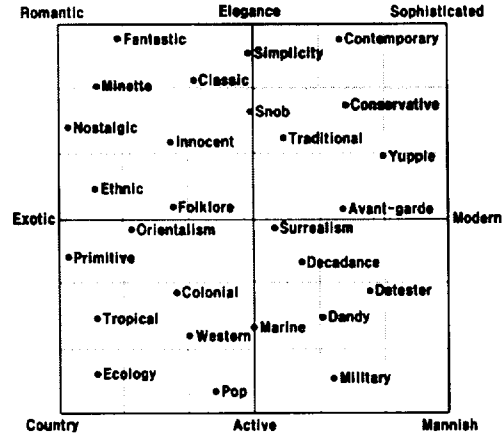
패션타입	패션이미지	미의식	감성용어
페미닌	엘레강스(Elegance)	고상하고 품위있는 여성다움을 지향하는 미의식	고상한, 우아한, 여성스러운, 꾸밈리적인, 페미닌한
	세련된(Sophisticate)	세련된 도시감각을 선호하는 미의식	인공적인 세련미, 도회적인, 지성미
모던	모던(Modern)	색다른 개성과 지성미를 존중하는 미의식	실험적인, 포스트 모던한, 하이테크감각, 개성미, 반문화적인
	남성적인(Mannish)	자립성이 왕성한 남성취향의 미의식	합리적인, 기능적인, 서구적인, 강한, 딱딱한
액티브	액티브(Active)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미의식	활동적인 경쾌한, 캐주얼한, 밝고 건강한
	컨트리(Country)	서민적 정취와 야성미, 자유분방을 추구하는 미의식	자연의 아름다움, 서민적, 야성미, 자유분방한, 애플로지, 원시적인
노스탈지	엑조틱(Exotic)	소박한 여성다움과 이국적인 신비에 매혹되는 미의식	옛 것에 대한 향수, 전통적인, 역사적인, 민속풍의
	로맨틱(Romantic)	꿈과 낭만을 좇는 미의식	화려한, 장식적인, 영화같은

<표 4> 사상인별 패션이미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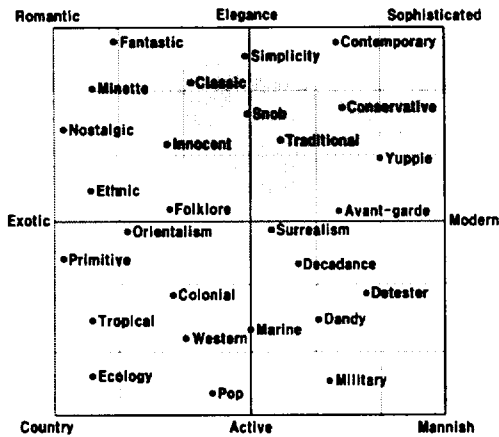
음양	사상체질		감성적 요소	
	태양	사상인	상황적 요소 (Fashion type)	이미지 요소 (Fashion Image)
양	태양	남자다운 남자	Modern, Active	Modern, Mannish, Active
	소음	여자같은 남자	Feminine	Elegance, Sophisticate
음	태음	여자다운 여자	Nostalgic, Feminine	Exotic, Elegance
	소양	남자같은 여자	Modern, Active	Mannish, Active,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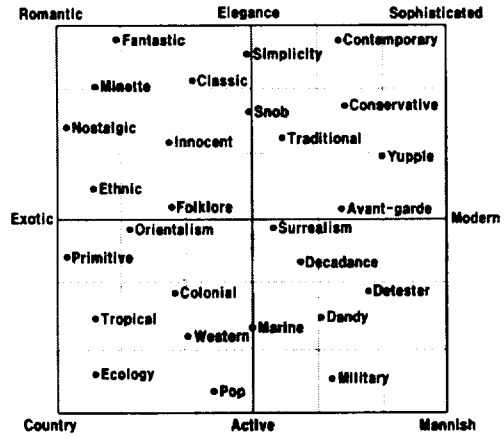
(그림 1) 태양인의 패션이미지 포지션



(그림 3) 태음인의 패션이미지 포지션



(그림 2) 소음인의 패션이미지 포지션



(그림 4) 소양인의 컬러이미지 포지션

결론적으로 (그림 1)과 같이 태양인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기획, 광고, 발명 같은 일을 선호하는 진취적이고 개성적인 성향, 남성처럼 행동하려고 하며 여성적인 것을 하지 않는 성격으로 보아, 강한 자립심과 중후한 분위기인 모던, 매니쉬, 액티브한 이미지라 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소음인은 머리가 총명하고 판단력이 빨라 많은 일에 빈틈이 없으며 변화가 없는 환경이나 단조로운 일에도 잘 버티며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교수타입이 적합, 단정하고 침착, 사교적이어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성격으로 보아 품위 있고 우아하며 여성적인 아름다움의 분위기

인 엘레강스, 소피스케이튼 이미지라 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태음인은 내성적이어서 새롭고 참신한 시도보다는 관례를 따르는 일관성·보편성을 지향하고 항상 여성적인 일을 하고자 하며 남성적인 것을 싫어하는 수더분한 성격으로 보아 고상하고 품위 있는 여성다움과 더불어 소박한 여성다움을 지향하며 옛 것에 대한 향수와 전통을 선호하는 분위기인 엘레강스, 예조틱 이미지라 할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소양인은 외향적이고 명랑, 재치가 있으며, 성질이 급하고 경솔하며 실수가 많은 반면 다정다감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이 강하며, 사상인 중에서 가장 욕심이 적고 성질이 급한 성격으

로 보아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추구하며 활동적이고 적극적, 밝고 활발한 분위기와 여성다움을 약화시키는 분위기, 자유분방을 추구하는 분위기인 매니쉬, 액티브, 컨트리 이미지라 할 수 있다.

### 3-2. 컬러 이미지

사람은 모든 색들을 보고 느끼고 듣고 말하고 나아가서는 색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수많은 색들 중에는 사람에게 이로운 색, 해로운 색, 무관한 색, 건강한 색, 운을 가져다주는 색, 마음을 변하게 하는 색 등 여러 가지가 서로 어우러지고 또는 상반되게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표 5>와 같이 각 체질마다 선호하는 색과 좋은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색과 혐오색을 통해 심리적인 상태와 주변환경을 분석·활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선호색은 연령, 지역, 교육환경, 생활환경, 성별,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지기도 하고 개인적인 성격과 취향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선호색을 통해 심리상태와 성격과 취향, 기질 등 감성정보를 측정하게 됨에 따라 체질개선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사상인의 색상분석을 위한 틀로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체질별 계절을 중심으로 컬러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사계절 컬러 이미지 분류가 컬러 이미지 스케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컬러이미지는 의미분별법(Semantic Differential : SD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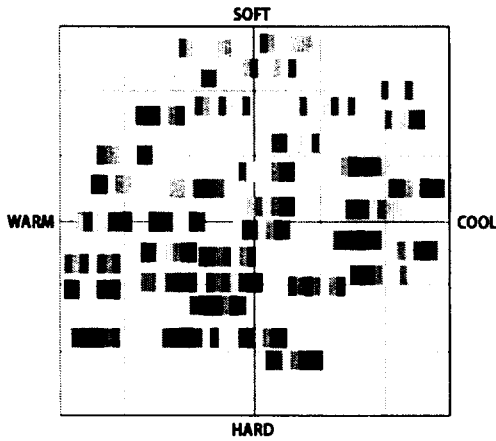
로 Kobayashi(1981)의 컬러이미지 척도에 대한 연구 결과, 색과 언어의 관계를 모든 색은 따뜻함(Warm)과 차가움(Cool), 부드러움(Soft)과 딱딱함(Hard), 선명함(Clear)과 회미함(Grayish)의 세 속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상인의 컬러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감각적인 판단을 객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개발된 체계적인 컬러이미지 스케일(Color Image Scale)을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의미분별법에 의한 컬러이미지 스케일은 Cool, Soft, Hard, Warm 등 4가지 요소로 각 사상인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컬러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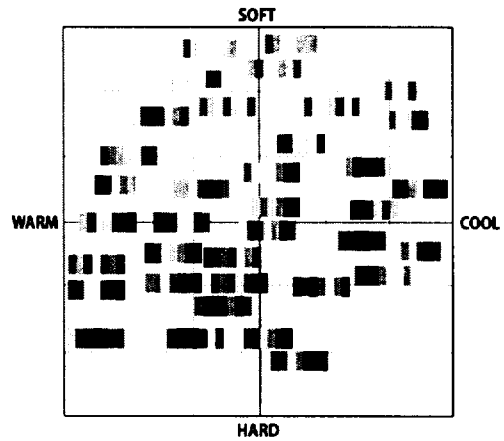
그 외의 성격유형에 관한 일반적인 분류는 양인(외향적 성격)과 음인(내향적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인은 비교적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다. 그에 따라 선호하는 색 역시 빨강, 주황, 노랑 등 원색의 화사하고 밝은 색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같은 기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반면 음인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예민한 성격으로 선호색 역시 차가운 계열의 파랑, 그린, 무채색 등으로 차분하고 가라앉은 색을 선호하게 된다.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색이 달라지며 색에 의해 각기 다른 영향을 받아 심리적, 정서적인 변화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색이 지닌 성격을 통해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고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색으로 보완,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사상인의 성격형성에 효율적인 색채를 활용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인과 같이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하거나 산만한 이에게는 진정효과를 주는 그린이나 블루계열, 무채색의 의상을 입을 경우 평소보다

(표 5) 사상인별 계절에 따른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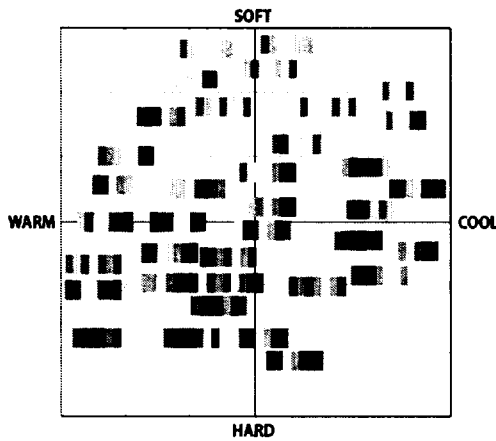
사상인	구분	장부대소	선호 색상		체질개선을 위한 색상	
			계절	색상	좋은 계절	좋은 색상
태양인		패대간소	가을	흰색	봄	파랑
소음인		신대비소	겨울	검정	여름	노랑
태음인		간대폐소	봄	청록	가을	흰색
소양인		비대신소	여름	노랑	겨울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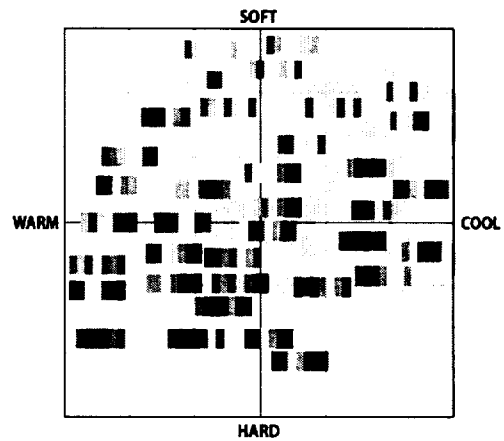
(그림 5) 태양인의 컬러이미지 포지션



(그림 7) 태음인의 컬러이미지 포지션



(그림 6) 소음인의 컬러이미지 포지션



(그림 8) 소양인의 컬러이미지 포지션

차분하고 가라앉은 효과를 주며, 반면 태음인·소음인과 같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자신감이 없는 이에게는 밝고 화사한 파스텔이나 원색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패턴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상인의 성격과 심리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색채활용을 통해 체질개선이 가능하다고 사려된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과 한의학이 신체적 특성

및 성격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유사성을 비롯하여 사상체질의 구별이 의복을 착용한 체형과 용모인 외모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상체질을 고려한 의상디자인 및 색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체질개선은 물론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현대인의 병폐를 치유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상디자인 및 색상을 개발하기 위해 앞서 선행 연구로 수행한 신체적 특성 및 성격에 의한 사상인의 패션이미지 및 컬러이미지를 분석·해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태양인의 패션이미지는 진취적이고 개성적인 성향. 남성처럼 행동하려고 하며 여성스러움을 싫어하는 성격으로 보아 모던, 매니쉬, 액티브한 이미지라 할 수 있으며, 소음인은 단정하고 침착, 사교적이어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성격으로 보아 엘레강스, 소피스케이트한 이미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태음인은 내성적이어서 항상 여성적인 일을 하고자 하며 새롭고 참신한 시도보다는 관례를 따르는 일관성, 보편성을 지향하는 성격으로 보아 엘레강스, 액조티한 이미지라 할 수 있으며, 소양인은 외향적이며 명랑, 재치, 다정다감. 봉사과 희생정신, 사상인 중에서 가장 욕심이 적고 성질이 급한 성격으로 보아 매니쉬, 액티브, 컨트리 이미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컬러이미지를 보면, 음인 체질인 태음인, 소음인의 컬러는 흰색이나 노란색 등 밝은 계통이 몸에 좋고, 계절은 여름과 가을이 좋으므로, 봄에 가장 피로를 잘 느끼는 체질이 태음인이며 소음인도 태음인 못지 않게 피로하고 나른해지기 쉽다. 반면 양인 체질인 태양인과 소양인은 푸른색이나 검은색 등 어두운 계통의 색이 몸에 좋고 계절은 봄이나 겨울이 좋다.

이와 같이 사상인들은 각기 체질에 따라 고유의 자성(滋性)을 띠고 있으므로 체질별 체형 및 성격에 따른 패션이미지 및 컬러이미지를 고려하여 의복 스타일을 선택한다면, 건강한 생활 유지는 물론 체질개선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체질개선이란 다른 패션이미지 및 색상 유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소 그 유형의 좋은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후속으로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사상인에게 효과적인 의상디자인 및 색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강인정, 체질보감, (서울:넥서스), 1998, p.31
- 2) 이제마는 조선 후기 성리학의 부패상과 당쟁만을 일삼는 정치로 인해 도탄에 빠진 백성을 돌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론으로서 「사상철학」을 완성하여 이것을 실생활에 응용하여 「사상의학」이라는 동양의학을 펼침으로써 철학과 의학이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고난 불균형을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인간학」의 양면이라 하였다.
- 3) 유성훈, 체질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 (서울:고려원미디어), 1996, p.15
- 4) 이수완, 운명을 바꾸는 사상의학, (서울:뜨락), 2001, p.19
- 5) 기질(temperament) : '타고난 특성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
- 6) 박희관, 이종화,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음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지 Vol.10 No.2, 1998, p.45
- 7) 특질이론적 접근, 사회학습 이론적 접근, 정신분석학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 등이 있으나, 의복행동과 관련지어 연구된 것은 극히 일부이며, 그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특질론이다.
- 8) 이명복,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서울:대광출판사), 1993, p.63
- 9) 이용구 외 1인, "사상체질과 임상검사 결과와의 상관관계",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Vol. 8-2, 2000, p.384
- 10) 원문 :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 11) 유성훈, op.cit., pp.33-34
- 12) 강인정, op.cit., p.29
- 13) 이광준, 한방심리학, (서울:학문사), 2002, p.160